

“역대정부, A급 전범 등 일본인 12명에 훈장”

731부대 관련자·독도 망언자 포함

인재근 의원 “서훈제도 개선 필요”

대통령장 A급 전범과 야스쿠니(靖國) 신사참배자, 731부대 관련자 등 수훈 자격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일본인 12명이 우리 정부의 훈장을 받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중당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외국인 훈장 수훈자’를 조사·분석한 결과, A급 전범 3명, 731부대 관련자 1명, 야스쿠니 신사 참배자 3명, 독도

침진 3명을 제외한 15명의 전범 가운데 3명”이라고 설명했다.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스즈키 켄코(鈴木善幸) 전 총리,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 모리 요시로(森喜朗) 전 총리 등 3명과 731부대 관련자인 가토 카쓰야(加藤勝也) 등도 수훈자에 포함됐다.

또 독도 관련 망언이나 일본 제국주의 미화 발언을 했던 사토 에이사쿠 전 총리(아베 총리의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의 동생), 시나 에쓰사부로(기시 노부스케의 핵심참모), 다카스기 신이치, 아베 신타로 전 외무대신(아베 총리의 부친), 다케시타 노보루(竹下登) 전 총리 등도 우리 정부로

부터 훈장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 의원은 사토 전 총리는 1965년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는데 의심이 없다”, 시나 에쓰사부로는 “조선병합을 일본제국주의라고 한다면 그것은 영광스런 제국주의다” 등의 망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총 12명 가운데 731부대 관련자인 가토 카쓰야는 ‘국민훈장동백장’을, 나머지 11명은 모두 ‘수교훈장광화장’을 받았다.

이들에게 훈장을 수여한 정부는 박정희 정부에서 7명, 전두환 정부에서 3명, 김영삼 정부에서 1명, 이명박 정부에서 1명 등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두(竹下登) 전 총리 등도 우리 정부로

11월 수교훈장광화대장을 수여했다.

인 의원은 “우리 정부 수립 이후 훈장을 받은 일본인 326명을 대상으로 관보, 언론기사, 인터넷, 일본의 국회 회의록 등을 모두 조사하고 분석해 수훈 자격에 문제가 있는 12명의 명단을 찾아냈다”고 설명했다.

인 의원은 “이들은 모두 일본의 우경화나 군국주의를 폐하고 심지어 역사적인 사실관계를 부정하는 등 한일 관계에 공헌은커녕 악영향을 끼쳐왔다. 훈장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인물들”이라고 비판하고 “정부 서훈제도의 근본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상위 1% 부자가 세계 부 절반 차지

한국 백만장자 25만명

5년내 79% 증가 예상

전 세계 부(富·wealth)의 46%는 상위 1%의 부자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또 한국의 백만장자는 5년 내로 지금보다 79%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크레디트스위스(CS)는 10일 ‘2013 세계 부 보고서’(Global Wealth Report 2013)에서 이같이 밝혔다. 또 상위 10%가 전 세계 부의 86%를 보유하는 등 부의 집중화 현상이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세계 부 총액은 지난 10년간 68% 늘어 241조 달러에 달한다며 2018년까지는 40% 증가해 334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세계 1인당 부 보유액은 5만1600 달러(약 5500만원)로 나타났다며 1인당 부 보유액이 10만 달러(약 1억1000만원)가 넘는 나라는 북미와 서유럽 지역에 집중됐다고 말했다.

1인당 부가 가장 많은 나라는 스위스(51만3000 달러·5억5000만원)였으며 호주, 노르웨이, 룩셈부르크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세계 인구 3분의 2는 각각 보유부가 1만 달러(1100만원)가 되지 않았다.

보고서는 2013년 전 세계 백만장자 숫자는 총 3168만 명으로 이 가운데 미국에 사는 사람은 1321만 명이라고 밝혔다.

한국 백만장자는 모두 25만 1000 명으로 2018년에는 79% 늘어난 44만9000명이 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예측했다. /연합뉴스

朴대통령, 동북아평화구상 지지 확보

아세안 정상회의서

아세안(ASEAN) 관련 정상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 구상에 대한 회원국들의 지지가 의장 성명 형태로 표현됐다.

박 대통령의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취재진에 10일 배포된 제16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의장 성명 17조에는 “우리는 한국 대통령이 제안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및 동북아평화협력 구상을 환영했다”고 명시했다.

또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상의 의무와 2005년 9월19일 6자회담 공동성명 하의 약속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며 “우리는 비핵화에 관한 실질적 진전을 끌어낼 수 있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긍정적인 분위기 조성뿐만 아니라 평화적 방식으로 안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모든 노력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오전 브루나이 인터내셔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East Asia Summit)에 참석, 다른 참석자의 발언을 청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의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를 수행하는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는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와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의장 성명에 대해서도 “똥은 다를 수 있지만 같은 취지로 (지지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이에 따라 9~10일 열린 아세안 관련 3개의 정상회의 의장 성명에서 자신의 핵심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브루나이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만나 한반도 정세 등 한미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 대통령과 케리 장관의 환담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한미간 당면 현안인 북핵 문제 등 북·한 및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와 관련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케리 장관에 앞서 리 커창(李克強) 중국 총리와도 환담했다. /연합뉴스

“우치공원 개인에 편법 위탁”

서정성 시의원 주장

서정성(민주·남구 2) 광주시의원은 10일 “광주시가 우치공원 위탁자를 대천필랜드로 발표했지만 개인 사업자가 낙찰받아 별도 법인을 만들어 운영 중”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대천필랜드의 상호만 빌려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뒤 낙찰 이후 별도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는 편법을 통한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토지면적이 17필지에 달하고 유희시설이 27종이나 되는 우치



공원을 한 개인에게 위탁 경영하게 하는 것은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대천필랜드 대표 명의의 개인 사업자와 처음 위탁 계약을 맺었지만 이후 이 사업자를 포함한 공동 3인 명의로 신청했다”며 “관련법 검토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남도의회, 광주은행 지역환원 촉구 결의안 채택

전남도의회가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인 광주은행의 지역환원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전남도의회 명현관(해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은행 지역환원 촉구 결의안’이 10일 제28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도의회는 “1도 1은행” 정책을 토대로 설립된 광주은행은 지역경제 활성에 이바지하는 등 중추적인 구실을 해 왔다”며 “지역민이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금융위기 때 광주은행 살리기에 나설 정도로 애정이

많은 향토은행으로 지역민에게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현관 의원은 “정부가 지역정서를 외면한 채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광주은행 주식을 공개경쟁방식의 최고가 원칙으로 매각하겠다는 뜻을 반복하며 매각절차를 진행, 지역민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광주은행을 원래의 주인인 지역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자본에 우선협상권을 주거나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을 촉구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해야”

전국농어촌군수협의회 촉구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회장 최형식 담양군수·이하 군수협의회)는 10일 “기초 농산물 국가 수매제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군수협의회는 최근 담양리조트에

국가 수매제는 국민이 안전한 먹거리를 경제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가장 현명하고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식량 자급률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하락해 식량 안보와 주권이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했다”며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된 국민 기초식량보장법안이 1년이 지나도록 방치된 것은 정부, 국회, 여·야 정치권 모두 현재의 식량 위기 상황과 국민의 고통을 도외시하는 탓”이라고 비판했다.

군수협의회는 이번 정기총회에서 ▲자유무역협정(FTA) 한우 피해 보전직불금 기준가격 인상 ▲한우 보험지원 확대 ▲유해 조수 피해대책 ▲농기계은행 인력 확충 ▲정부의 대도시 주변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 등도 논의했다.

군수협의회는 전국 65개군이 농어촌 공동발전을 위해 2012년말 결성했으며 최형식 담양군수가 초대회장을 맡고 있다. /담양=정재근기자 jgg@kwangju.co.kr

행복한 부지를 위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ASSET KOREA since 2005

부실채권(NPL) 매각

화정동 예식장
 대지:1094㎡ 건물:4489㎡
 감정가격:41억5천만원 채권매각:상담시 공개

월출동 공장
 대지:광주광역시 건물:2353㎡
 감정가격:21억6천만원 채권매각:상담시 공개

금남로4가 빌딩
 대지:800㎡ 건물:4834㎡
 감정가격:69억3천만원 채권매각:상담시 공개

쌍암동 무인텔
 대지:1760㎡ 건물:2821㎡
 감정가격:46억 채권매각:상담시 공개

부실채권 매각은 현재 경제진행중이거나 정치중인 물건을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인 에셋코리아를 통해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유용한 제테크 방법입니다.

상담 010-7570-7525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7-1
 (1층 국민은행은 본영 사무실)

신한공인중개사

신축 원룸 상가 매매

신축원룸

전대 상대 농대 입구 1분

룸11개 4층 주택가능
 (전면대리석 벽돌시공)
 상가 1개, 원,투룸,쓰리룸10개
매가 6억(준공완료)
월수익 500만

★수완지구 상가 4층 중 3층 매매 (85평)★
 모아엘가 APT후문 바라앞
 매가 3억3천(현재 40평 임대중)
 용자 2억5천 보 1천70만

★수완지구 1층 상가 임대 (17.5평)★
 1층 보증금 3천 월 130만원
 (현재 부동산 운영중)

기타물건 접수 (1억~100억)

☎(062)952-5584
 H.P. 010-6670-9800

부동산 성공 투자
하늘땅 공인중개사 가 함께합시다

상가/건물

- * 도천동 창고 대지 2,500㎡,건평 500㎡ 매매 18억
- * 시우나건물(8층) 매 17억5천(보증금 8천, 월800만),직영수입 별도
- * 두암동 5층 건물 매 8억5천
- * 첨단 구분점포 105㎡ 매 8억6천 (보증금 8천, 월430만)
- * 첨단 월계동 건물 매 27억(보증금 2억8천월 1,600만)
- * 예식장건물 65억(병원,교회등 다목적이용 가능)

대지/전답

- * 나주 혁신도시인근 토지 7,800㎡(구 2,400평) 3.3㎡당 80만원
- * 광산구 신창동 생산농지 1,980㎡ 매 6억5천
- * 완도군 악산면 토지 11,000㎡ 매 8억4천
- * 장흥군 장평면 대지 및 전 13,165㎡ 매 3억5천
- * 장흥군 용산면 101,851㎡ 매 6억
- * 여수 돌산읍 전 1,874㎡ 매 2억

기타

- * 광산구 보덕동 주유소 매 7억(보 1억,월 350만)
- * 나주시 문평면 국도 1호선변 주유소 매 7억 (용 4.5억 포함)

광주,전남권 매도·매수 상담,접수 환영

부동산 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
하늘땅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5536-0382 Fax 062) 974-0449

신도시 공인중개사 사무소

■ 상가건물이나 땅 삽니다 ■

금액로 팔아야할 상가나 땅이 있으시면
 저희 부동산에 전화 주십시오.
 최대한 빠른 시일에! 높은 가격에!
 바로 처분에 드립니다.

상가건물 매매

- * 풍암동 상업지역내 위치 좋은 신축상가 대지520㎡, 건물 3,135㎡ 대출28억 포함 매매가 42억.
- * 동천동 대지 705㎡, 건물 185㎡. (수익률 좋음) 매매가 16억5천만원.
- * 쌍촌동 대단위아파트단지 내 대지 350㎡ 건물 996㎡ 매매가 16억.
- * 수완지구 대지 316㎡, 건물 632㎡ 매매가 15억

토지 매매

- * 남구 주월동 대지 3,768㎡ 도시형생활주택, 소형빌라 신축적합 매매가 32억.
- * 광산구 수완동 수완자동차매대단지 입구. 전 2,230㎡ 광고효과 최고, 물류센터, 타이어 적합. 매매가15억.
- * 화순군 동면 오동리 전, 임야. 계획관리지역 17,730㎡ 매매가 2억9천만원.
- * 나주시 부덕동 2차선 도로점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 전 2,350㎡ 건축가능, 투자적합 매매가 1억9천만원 (급매)

바쁘시더라도 대면해서 상담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시 만큼 보답하는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 062-513-4985, 010-2338-3113

급매매

신인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600만원 정도

토지 가격 만도
 9억정도

매매가격
 9억 4천만원

라멘조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